한국학연구 제74집 | 619~640쪽 | 2024.8.

김해 숭선전 벽화 연구

김정선*

〈차 례〉

1. 서론
2. 숭선전 벽화 개요
3. 숭선전 벽화의 도상과 연원
4. 숭선전 벽화의 조성 의미
5. 결론

[국문초록]

김해시 수로왕릉 사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숭선전(崇善殿)은 가락국 시조 수로왕과 왕비 허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향화를 받드는 전각으로, 조선 팔전(八殿) 중 한 곳이다. 1878년에 고종이 전호를 하사하고 새롭게 중수한 숭선전 내부에는 동, 서, 남, 북 사방에 총 51건에 달하는 벽화가 그려져 있다. 벽화는 북쪽 벽면에 안치된 위패를 중심으로 일월도, 배례도, 시조 설화도, 화조영모, 산수 등을 배치해 왕의 권위와 예배 공간을 상징하고 수복, 다산, 번영과 같은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특히 숭선전에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수로왕 탄강설화와 허황후의 파사석탑 설화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논고에서는 이러한 벽화의 내용과 구성이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했던 조선시대 사묘 건축과는 차별되는 점을 바탕으로 벽화 조성의 연원과 그 의미를 추적하고자 하였다. 실제 숭선전 벽화는 18세기 이후 조성된 사찰 원당 벽화와 도상 및 형식이 유사하며, 조상 추숭과 현세 기복적인 내용이 다수 확인된다. 게다가 전례를 찾기 힘든 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도는 숭선전이 다른 팔전과 달리 김, 허 양(兩) 씨족의 시조묘(始祖廟)라는 점에서 각 가문의 위상과 정통성을 드러내는데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숭선전 벽화에 투영된 가문의 번창과 출세, 부귀 등의 대중적인 염원은 19세기 후반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유교의 기복적인 성격이 강화되던 당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주제어] 숭선전, 김수로왕, 허왕후, 조선 팔전, 추숭, 기복, 반야용선

* 동아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고고미술사학 전공 조교수

1. 서론

김해시 수로왕릉 사적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숭선전(崇善殿)은 가락국 시조 수로왕과 왕비 허씨의 신위를 봉안하고 향화를 받드는 전각으로, 조선 팔전(八殿) 중 한 곳이다.[1] 조선은 건국 직후부터 역대 시조(始祖)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사를 지내고 전국에 전각을 건립하였는데,[2] 숭선전은 1878년에 고종이 전호를 하사하고 새롭게 중수하였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주심포양식으로, 특히 내부에는 동, 서, 남, 북 사방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벽화는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는 일월도, 문무백관 배례도, 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도를 비롯해 화훼영모, 산수도 등 총 51건에 달하며,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했던 조선시대 사묘건축으로는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소론은 그 동안 조명된 적이 없는 숭선전 벽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3] 도상의 연원과 벽화 조성의 의미를 추적하고자 한다. 숭선전이 건립된 19세기 후반은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쇠퇴하고 유교적 명분론이 설득력을 잃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성리학적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기보다 현실적인 복을 기원하는 유교의 통속화, 기복화(祈福化)를 촉진시켰다.[4] 숭선전 벽화는 이러한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내용과 구성 면에서는 유, 불, 민간신앙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조선

1) 팔전으로는 고려 태조 및 공신의 숭의전, 고조선 기자의 숭인전, 단군과 고구려 동명왕의 숭령전(崇嶺殿), 백제 온조왕의 숭렬전(崇烈殿), 신라 박혁거세의 숭덕전(崇德殿), 신라 미추왕, 문무왕, 경순왕의 숭혜전(崇惠殿), 가야 수로왕과 허왕후의 숭선전, 신라 석탈해왕을 모신 숭신전(崇信殿)이 있다.

2) 역대시조에 대한 제사는 1426년(세종 8)에 관련 규정이 설정되어『국조오례의』에 내용이 수록되었으나, 각 전각의 전호는 1452년경의 숭의전을 제외하고 임진왜란 이후, 시차를 두고 사액되었다.

3) 숭선전을 비롯해 팔전의 내부 장엄에 대해서는 종래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이 없었다. 다만, 팔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를 참고했다. 김인호,「조선전기 숭의전의 설치와 역사인식」,『사학연구』78, 2005; 한형주,「조선시대 '역대시조묘'에 대한 의례적 고찰」,『국학연구』39호, 2019; 백지국,「경주 숭덕전의 역사적 연원과 박혁거세 추숭 의식」,『민족문화논총』76호, 2020; 한형주,「국가 의례의 측면에서 본 숭선전 제례의 검토」,『숭선전제례(崇善殿祭禮) 문화재적 가치 재조명과 향후 과제: 숭선전제례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20; 이남옥,「조선시대 箕子 추숭의 과정과 그 의미」,『한국서원학보』16, 2023.

4) 정현,「조선후기 祭祀圖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7, 150~152쪽.

후기 사찰 벽화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따라서 논고에서는 '추숭과 기복'이라는 조선후기 유교의 특수한 상황에 주목하여 숭선전 벽화 조성의 연원과 의미를 찾고자 한다.

2. 숭선전 벽화 개요

1) 숭선전 연혁

현재 숭선전은 1878년에 고종이 원래 있던 정자각을 폐철하고 새롭게 중수한 건물이다. 수로왕릉에 재각(齋閣)이 처음 조성된 것은 숙종 대인 1698년으로, 『숭선전지(崇善殿志)』[5]에 따르면 김해부사로 부임한 허재(許梓)가 재각과 신주, 재실을 왕릉 앞에 조성한 것이 시초이다.[6] 이후 1792년에 김, 허씨 문중이 정자각으로 중건하고,[7] 1798년에 단청하였다.

> "정조 임자년(1792)의 제사 후에 김씨와 허씨 양종(兩宗)이 회의를 열어 증설하였다. 감동(監董) 김여천과 허훈이 공사를 주관하였다. 제각 네 칸은 옛 제도를 따라 정(丁)자 형태로 짓고,"[8]

---

5) 『숭선전지』는 2대 참봉이었던 허식(許烒, 1837~1906)이 1903년에 자료를 모아 2권으로 편찬한 책자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논고에서는 2016년 한글 번역서로 간행된『숭선전사』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6) "제각 4칸, 신주 4칸, 재실 4칸, 회로당 5칸이 모두 왕릉 앞에 있는데 제각과 신주(神廚), 재실은 과거 무인년(1698, 숙종 24)에 김해부사 허재가 황릉의 후예로서 세운 것이고 "「김해부사보장(金海府使報狀)」,『숭선전사』 권2, 2016, 169쪽.

7) 정자각은 평면이 '丁(정)'자처럼 생긴 정각이다. 남쪽을 향해 가로로 놓인 부분이 정전(正殿)이고, 정전의 중앙에 연결되어 세로로 놓인 부분이 배위청(拜位廳)이다. 정전은 능침에서 내려온 신령의 자리인 신어평상(神御平床)과 제상을 두는 곳이며, 배위청에 제관들이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정자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5칸이 가장 많고, 17세기 말 이후, 정면 5칸에 측면 3칸의 8칸 정자각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숭선전 관련 일부 기록에서는 정자각 4칸으로 기술되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제각(祭閣)은 4칸인데 정자각(丁字閣)의 제도를 사용하였고, 부엌 4칸, 재랑(齋廊) 4칸, 재실(齋室) 4칸으로 바로 옛 회로당(會老堂)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 임자(1792) 4월 7일(을사)

8) 「납릉전각사실(納陵殿閣事實)」,『숭선전사(崇善殿史)』 권5, 2016, 453쪽.

도1. 숭선전 전경, 일제강점기 사진엽서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18세기 이후 수로왕릉은 봉분이 있는 능침과 의례 공간인 정자각이 일직선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왕릉의 형태로 조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878년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인 성재 허전(許傳, 1797~1886)[9]이 상소를 올려 수로왕릉을 숭의전, 숭령전, 숭덕전의 사례처럼 전호와 능관을 내려 줄 것을 청하였고,[10] 고종이 이를 승낙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 재각은 기존의 정자각을 헐고, 1870년에 수리한 숭덕전의 법식에 따라 3칸으로 건립하도록 하였다. [도1]

이후 숭선전은 근현대기를 거치며 수차례 보수와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1987년에 부속 시설의 증가, 참배 공간의 협소화 등을 이유로 기존 왕릉 정면에서 숭모전 좌측으로 해체 및 이전 보수했다. [표1] 따라서 벽화는 적어도 현 숭선전 건물이 중건된 1878년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표1] 숭선전 중수 및 보수 연혁[12]

년 도	내용	형태	규모
1698(숙종 24)	재각 건립	-	-
1761(영조 37)	재각 4칸 수리(奉命修葺)	정자각	4칸
1792(정조 16)	4칸 중건	정자각	4칸

9) 성재(性齋) 허전은 조선후기 문신으로, 성호 이익을 잇는 기호(畿湖) 남인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기도 하였다. 1864년 68세에 김해도호부사로 부임하여 3년 간 기거하며 향음주례를 행하고 선비들을 모아 학문을 가르쳤다. 1878년의 상소는 양천 허씨 자손으로서, 김해 부임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10)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무인(1878) 6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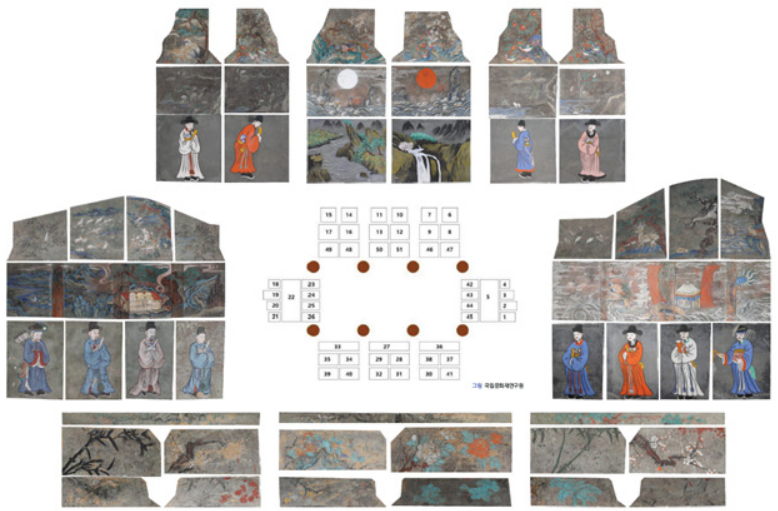
11) 숭선전 벽화 조성시기는 현재 명확하지 않으나, 안료분석에서는 보채를 제외하고 대체로 전통 안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9~20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안료분석은 김해시, 『김해 수로왕릉 숭선전 단청(벽화) 기록화 사업 보고서』, 2022 참조.

12) 숭선전의 중수 및 개 · 보수 이력은 『숭선전사』, 『조선왕조실록』, 『조선일보』, 『매일신보』, 김해시, 앞의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1798(정조 22)	재각 단청	정자각	4칸
1873(고종 10)	재각 중수	정자각	4칸
1878(고종 15)	정자각 폐철, 재각 중건(3칸) 및 단청, 숭선전 선액	일자각	3칸
1926	중수	일자각	3칸
1954	중수(마루 신설)	일자각	3칸
1963	외부 단청	일자각	3칸
1973	번와, 보수, 단청	일자각	3칸
1987	숭선전 경내 정비, 위치 이전	일자각	3칸

2) 벽화 내용

숭선전 벽화는 동 · 서측면 각 9폭, 남측면 15폭, 북측면 18폭으로 총 51폭에 달하며, 상, 중, 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는 일월도, 문무백관 배례도, 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도, 화훼영모, 산수 등 다양하다.[도2] 이 가운데 북측과 동측 하단의 산수 및 배례도 10폭은 안료, 색채, 화풍에 차이가 크고, 벽체의



도2. 숭선전 벽화 배치도
(출처: 『김해 수로왕릉 숭선전 단청(벽화) 기록화 사업 보고서』, 2022)

보강 흔적이 있어 후대에 이모(移模)한 것으로 추정된다.[13] 전체적으로 벽화는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동서북벽 하단에는 일월도를 향해 배례하는 문무대신 12위를 표현하여 왕족과 관련된 의례공간임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동 · 서벽 중단에 수로왕과 허왕후 관련 설화도가 4개의 벽면을 활용해 각 1폭씩 제작되어 있어 주목된다. 먼저 서측의 〈수로왕 탄강도(誕降圖)〉에는 서기가 가득한 낮은 구릉을 배경으로, 여섯 개의 황금알이 담긴 금색의 상자가 등장한다. 이는『삼국유사』가락국기의 수로왕 탄강설화를 근간으로 삼은 것으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후한(後漢)의 세조(世祖) 광무제(光武帝) 건무(建武) 18년 임인 3월 계욕일(禊浴日)에 살고 있는 북쪽 구지(龜旨)에서 이상한 소리가 부르는 것이 있었다. (중략) 황천(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임금이 되라고 하여 이런 이유로 여기에 내려왔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산봉우리 꼭대기의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르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라고 하고, 뛰면서 춤을 추어라. 그러면 곧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뛰게 될 것이다. 구간(九干)들은 이 말을 따라 모두 기뻐하면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러러 쳐다보니 다만 자주 빛 줄이 하늘에서 드리워져서 땅에 닿았다. 그 줄이 내려온 곳을 따라가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합(金合)을 발견하고 열어보니 해처럼 둥근 황금 알 여섯 개가 있었다."[14]

실제 화면은 이상의 기록을 정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소나무로 둘러싸인 낮고 편평한 구릉은 구지봉을, 멀리 좌측에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9명의 인물은 9부족의 추장이었던 구간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붉은 줄, 금박을 사용해 표현한 황금의 알과 금합 등은 이야기와 일치하

13) 숭선전 이전 처리 보고서에 따르면, 숭선전 내에는 기존의 벽화를 보존하고자 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며, 이들 10폭은 벽체를 다시 만들고 그린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하단부라는 위치 상 오랫동안 습기와 빗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백찬규,「건물 벽화의 해체 · 이전공사와 그 보존: 김수로 왕릉 숭선전벽화의 보존처리」,『헤리티지: 역사와 과학』22호, 1989. 6, 1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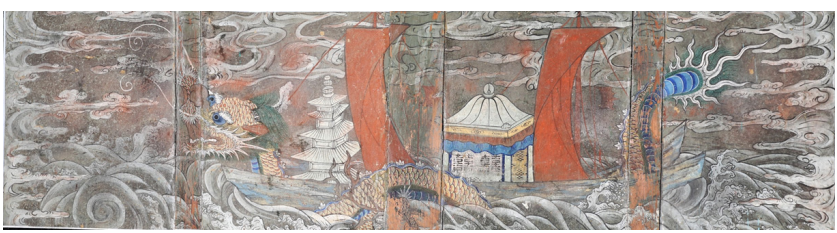
14)『삼국유사』권 제2, 기이(奇異) 제2 가락국기(駕洛國記)

도3. 〈수로왕 탄강도〉, 숭선전 서벽

며, 신비롭고 신성한 순간을 화려한 청록산수와 유려한 필선을 이용해 표현하였다. [도3]

이어서 동쪽 벽면에는『삼국유사』금관성(金官城) 파사석탑조(婆娑石塔條)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허왕후 도래도(渡來圖)〉가 그려져 있다. 거센 파도를 헤치며 황룡의 인도를 받아 금관국(가락국)으로 향하는 배에는 2개의 붉은 돛과 깃발, 오층의 석탑이 등장하며, 이는 사료의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다. [도4]『삼국유사』에는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의 여정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 "금관성 호계사(虎溪寺)의 파사석탑은 옛날 이 읍(邑)이 금관국으로 되어 있을 때, 세조 수로왕의 비(妃) 허황후(許皇后) 황옥(黃玉)이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 갑신(甲申)에 서역의 아유타국(阿踰陁國)에서 싣고 온 것이다. 처음에 공주가 어버이의 명을 받들고 동쪽으로 오려고 하다가 파신(波神)의 노여움에 막혀서 할 수 없이 돌아가 부왕(父王)에게 아뢰니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라' 명하니



도4. 〈허왕후 도래도〉, 숭선전 동벽

곧 쉽게 건널 수 있어서 남쪽 해안에 정박하였다. 붉은 돛, 붉은 깃발, 주옥(珠玉) 등 아름다운 것을 실었기 때문에 지금 주포(主浦)라고 부른다. (중략) 탑은 4면으로 모가 나 있고 오층인데, 그 조각이 매우 기이하다. 돌에 미세한 붉은 반점이 있고 석질은 무르고 특이하니 이 지방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15]

다만, 〈허왕후 도래도〉의 경우, 위 기록에는 없는 용이 등장해 주목된다. 이러한 용과 배의 결합은 특히 불교의 반야용선(般若龍船)을 떠올리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숭선전 벽화에는 머리에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은 문무백관이 손에 홀을 든 채 중앙을 향해 배알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모두 청포 · 홍포 · 백포의 단령(團領)을 입거나 군사 복식인 융복 차림의 전신상이다. 문관의 경우, 가슴에 학과 구름을 사용한 운학문 흉배를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무관으로 보이는 2인은 등에 화살을 메고 청색 철릭에 전립을 쓴 차림으로 시립하고 있다.[16]

이 외에 북벽 중앙에는 기암절벽이 솟아 있는 바다에서 해와 달이 떠오르는 일월도를, 북, 동, 서벽 상부와 남쪽 벽면에는 길상적 의미를 담은 영모 화조를 주로 배치하였다. 예를 들어 북벽 상부에는 부부화합을 상징하는 한 쌍의 학, 꿩, 원앙 등의 화조가, 동벽 상부에는 암수 한 쌍의 사슴과 영지, 까치가 확인된다. 서쪽 벽면의 갈대밭의 백로와 폭포 아래 쏘가리는 어변성룡(魚變成龍)과 같은 출세와 관련된 도상으로 볼 수 있다.[17] 동벽의 자라와 토끼, 토끼를 노려보는 매를 그린 추응토박도(秋應兎搏圖) 역시 토끼의 지혜를 상징하는 길상적인 소재이다.

이처럼 숭선전 벽화는 수로왕과 허왕후를 의미하는 일월도를 비롯해 설

15) 『삼국유사』권 제3 탑상편 제4 금관성파사석탑조(金官城婆娑石塔)

16) 융복은 무관뿐 아니라, 문관이나 무관이 몸을 경첩(輕捷)하게 하여야 할 경우의 복장으로, 왕의 행차에 수행할 때, 외국에 사신으로 파견될 때, 국난을 당하였을 때에 착용하기도 하였다.

17) 해오라기의 한자어인 '노(鷺)'는 길 '로(路)'와 음이 같아 과거길에 급제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등용문의 소재가 된 잉어뿐 아니라 쏘가리도 과거에 급제하여 대궐에 들어가 벼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쏘가리를 뜻하는 한자인 '궐(鱖)'이 대궐을 의미하는 궐(闕) 자와 동음(同音)이기 때문이다.

화도, 배례도 등을 통해 왕실의 의례 공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한편, 한 쌍의 새와 동물, 포도, 석류, 모란, 영지 등의 각종 화조, 영모, 어해(魚蟹)를 사방의 벽면에 시문하여 부부화합과 다산, 자손번창, 장수와 같은 현세 기복적인 염원을 담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벽화 내용은 의례의 정신을 강조하고 지나친 장식을 배제했던 종래의 유교 사당에서는 예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벽화 제작에 있어서는 불교 사찰의 장엄 방식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되는데, 다음은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숭선전 벽화의 도상과 연원

1) 일월도, 배례도

숭선전 벽화의 정확한 제작 시기 및 제작자에 관해서는 현재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일월도와 배례도의 출현 및 벽화 구성 등에서는 18세기 후반,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된 사찰 원당(願堂)의 내부 장엄과 유사한 점이 확인된다. 원당은 개인의 안녕과 명복을 빌기 위해 설치한 전각 내지 사찰을 의미한다.[18] 왕실의 기도처이자 왕실 차원의 조상 숭배 시설로서 조선시대에 수차례 혁파 논의가 있었음에도 "나라 안의 명산대찰(名山大刹)은 거의 모두 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만세를 축수"[19]할 정도로 왕실 발원 원당이 전국에 남설(濫設)되었다.[20] 현재는 극히 일부만이 남아있으며, 그 중 일월도 및 배례도 등 왕실 관련 도상이 확인되는 원당은 선암사 축성전, 안정사 만수전, 송광사 성수전, 고운사 연수전 등이다. 대부분이 18세기 후반이후,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표2]

---

18) 장계수, 「순천 선암사 축성전(현 장경각)의 벽화 연구」, 『불교미술사학』 제27집, 2019, 99쪽.
19) 「耆老所先生案序」, 『曹溪山松廣寺史庫』, 아세아문화사, 1977, 913쪽.
20) 조선시대에는 200여 개의 왕실원당이 건립되었으나 실제 남아 있는 수는 미비하며 용도가 변질된 경우도 다수 있다. 탁효정, 「조선시대 왕실원당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표2] 일월상 및 배례도가 확인되는 사찰 원당

조성시기	사찰명	소재지	벽화 내용	조성 목적
18세기 말	선암사 축성전	전남 순천	산수도, 소상팔경, 용, 학, 매화, 난, 화조, 화훼, 길상복합(폭포), 배례도(6인)	세자 및 왕실 축수기원
1894년	안정사 만수전 (현 칠성각)	경남 통영	일월(추정)[21], 소상팔경(〈연사모종〉, 〈동정추월〉), 배례도(6인), 기명연화	왕실 축수기원
1902년	송광사 성수전 (현 관음전)	전남 순천	일월, 배례도(14인), 학, 봉황, 용, 화훼, 태극무늬	고종 및 왕실 축수기원 고종의 기로소 입소 기념
1903년	고운사 연수전	경북 의성	일월, 학, 봉황, 십장생, 태극무늬, 龍樓萬歲, 富似海百千秋, 鳳閣千秋, 壽如山長不老	고종 및 왕실 축수기원

이들 벽화는 대체로 일월, 문무백관 등을 배치한 왕실의 의례공간과 수복을 기원하는 화훼, 영모 등의 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송광사 성수전은 왕실의 축수와 더불어 고종의 기로소(耆老所) 입소를 기념하여 조성한 건물로,[22] 일반 불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벽화들이 내 · 외부 벽면에 그려져 있다. [도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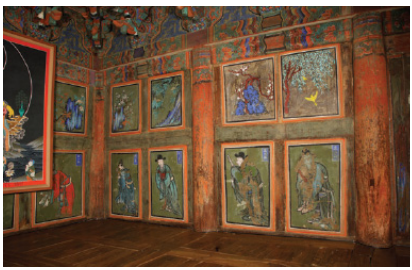
내부에는 동 · 서 9점의 벽화가 대칭을 이루고 있으며, 북측면은 어칸의 일월도를 중심으로 상하단에 6점씩 총 14점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은 오색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일월도를 향해 허리를 굽혀 배알하고 있는 14명의 대신들이다. 이들은 금관조복과 사모단령을 착용하고 손에는 홀을 들고 서 있으며, 각 인물 의 품계를 기입한 방제(旁題)와 전각의 건립 배경을 통해 70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문관인 기로신(耆老臣)들로 추정된다.[23] 즉, 고종의 기로소 입소의 의례를 재현하고, 왕의 권위와 축수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1) 현재는 개채되었으나 북측면 어칸에 일월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전국)』, 2014, 160~161쪽.

22) 고종은 영조의 선례를 따라 51세가 되던 1902년에 기로소에 입소하였다. 성수전은 그 다음해인 1903년 5월에 조칙과 내탕금이 내려와 11월 15일에 완공하였다.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 『불교미술사학』 3, 2005, 197~198쪽.

23) 방제를 통해 정1품 6명, 종1품 4명, 정2품 4명으로 정1품에서 정 2품까지 신하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사찰벽화(전라남도)』, 2012, 347쪽.



도5. 송광사 성수전 〈배례도〉, 동측면

도6. 송광사 성수전 〈배례도〉, 서측면

이 외에 성수전에는 장생불사와 왕 · 왕비를 상징하는 〈봉황도〉, 〈송학도〉,[24] 〈운룡도〉를 비롯해 부귀영화, 장수 등을 기원하는 화훼, 화조의 다양한 도상이 확인된다. 그 중에 한 쌍으로 그려진 까치, 청둥오리, 파랑새는 부부화합을 상징하는 도상으로, 고종과 돌아가신 명성황후(1851~1895)의 부부애와 내세 해로를 기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25]

숭선전은 이러한 18세기 후반 이후에 조성된 사찰 원당 벽화와 내용, 구성면에서 유사하다. 서기가 어린 북벽의 일월도를 중심으로 12위의 문무백관이 배알하는 장면은 안정사 만수전, 송광사 성수전에서도 확인되며, 나머지 공간을 화조, 영모의 길상적 도상으로 장엄하고 있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특히 수로왕과 허왕후를 모시는 숭선전에는 송광사 성수전과 마찬가지로 한 쌍의 학, 꿩, 원앙, 사슴 등 부부화합의 도상이 다수 그려졌다.

이처럼 숭성전 벽화는 유교적인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왕실의 기도처이자 조상숭배와 내세추복의 의례적 공간이었던 사찰 원당을 참조해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실제 제작에는 화승들이 참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힘든데, 이는 용선(龍船)의 표현에서도 살펴진다.

---

24) 〈봉황도〉와 〈송학도〉에는 각각 붉은 해와 흰 달이 그려져 있다. 봉황과 학은 왕과 왕비의 장수를 상징하며 궁중 장식화에 즐겨 사용되었다.

25) 성수전 전패에는 "황후폐하(皇后陛下)/ 성체안녕(聖體安寧) 학수무궁(鶴壽無窮)/ 대황제폐하(大皇帝陛下)/ 천체안녕(天體安寧) 용루만세(龍樓萬歲)"라는 명문이 있어, 고종의 무병장수와 돌아가신 명성왕후의 안녕을 기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용윤, 앞의 논문, 199쪽, 207~208쪽.

2) 용선

전술했듯이 숭선전의 〈허왕후 도래도〉에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 용이 돛단배와 함께 등장한다. 한 손에 화염을 내뿜는 여의주를 쥐고 강인한 표정으로 거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용은 파신(波神)의 노여움을 잠재웠다는 파사석탑의 가피를 강조하는 동시에 사방으로 흩어지는 서기와 더불어 배를 수호하는 영험한 존재로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용은 물에 살며 비바람을 지배할 수 있는 신력을 가진 수신(水神)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배를 수호하는 용의 이미지는 일찍부터 동아시아에서 널리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 고산지(高山寺)에 전해오는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에는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의상대사와 선묘설화 가운데 호법대룡(護法大龍)으로 화현한 선묘가 거친 바다에서 의상대사가 탄 배를 위호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도7] 이국(異國)의 고승을 주제로 한 가마쿠라(鎌倉)시대의 보기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26] 여기서 용은 바다의 수호신으로 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보편적인 이미지로 등장한다.

도7. 〈華嚴宗祖師繪傳〉 권3, 13세기, 교토 高山寺

〈허왕후 도래도〉 역시 동아시아에서 공유되었던 이러한 일반적인 용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작품의 경우, 보다 적극적

26) 본 작품의 제작자는 고산사를 창건한 묘에 쇼닌(明恵上人)과 친분이 있었던 에니치보죠닌(恵日房成忍)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으로 용이 배를 에워싸고 용의 머리와 꼬리가 배의 선두(船頭)와 선미(船尾)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허왕후 도래도〉의 용은 조선시대 불교 도상으로 크게 유행했던 반야용선도를 떠올리게 한다.

반야용선도는 무수한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 극락으로 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일반적으로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결합된 용선이 등장한다.[27]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후기에 출현해 조선시대에 크게 성행했다. 초기에는 용선의 형태가 거룻배와 용의 머리를 결합하는 형식이었으나, 후기로 갈수록 선체를 감싸거나 머리에서 꼬리까지 한 마리의 용이 배 전체를 이루는 형상이 출현하게 된다.[28] [도8, 9] 〈허왕후 도래도〉의 용은 단순히 배의 측면을 위호하기보다 배를 감싸며 일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 다수 제작되었던 반야용선 도상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유추하게 한다.

도8. 〈반야용선도〉, 1896년, 통도사성보박물관

도9. 〈반야용선도〉, 20세기,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벽

이 외에 용의 표현에서도 사찰 벽화와의 관련성이 엿보인다. 숭선전 벽화의 용은 부릅뜬 눈과 쫙 벌린 입, 돼지 코 형상의 코, 길지 않은 사슴형의 뿔을

27) 김지연, 「조선후기 반야용선도 연구」, 『미술사학연구』 281호, 2014, 97쪽.
28) 한 마리 용의 전 신체를 구부린 형태의 용선은 중국 송대 이후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원, 「조선 전기 불교회화에 보이는 接引龍船 도상의 淵源」, 『미술사연구』 25호, 2011, 298~299쪽.

지니고 있으며, 조개를 이어붙인 것 같은 배, 입 주면으로 강하게 뻗은 수염 등은 조선 후기 사찰 및 민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의 이미지를 따르고 있다. 특히 3엽의 새싹처럼 보이는 등 갈기의 표현(표3의 붉은 원)은 범어사 관음전과, ‘ㄱ’자 형태로 급격하게 꺾은 혀와 전체적인 안면부의 표현은 해인사 명부전 운룡도와 흡사하다. [표3]

[표3] 숭선전과 사찰벽화의 용 표현 비교

〈허왕후 도래도〉, 숭선전	〈운룡도〉, 범어사 관음전	〈운룡도〉, 해인사 명부전

이러한 표현상의 유사점은 전술한 배례도, 일월도 등과 더불어 조선후기 사찰 벽화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실제로 화승들이 사찰 이외에도 관우 사당이나 점집 등의 단청 작업을 한 예가 적지 않고,[29] 허왕후 관련 사찰로 알려진 임강사(臨江寺)의 각종 부역을 기록한『임강사각항응역등록(臨江寺各項應役謄錄)』에는 숙종대에 승려들이 수로왕릉 앞의 신문(神門), 신주, 제실 공사에 동원된 내용이 남아있다.[30]

이처럼 숭선전 벽화는 존귀한 건물을 단청으로 꾸미는 사찰 특유의 장엄 방식이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왕실 기도처이자 조상 숭배의 의례적 공간이었던 사찰 원당을 참조해서 조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29) 화승 김일섭(金日燮, 1900~1975)은 사찰의 불화와 단청 작업을 하면서 타 종교(수운교, 관성묘 등)나 점집의 그림이나 단청 작업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최엽,「화승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불교미술사학』31집, 2021, 157~158쪽(『金魚 김일섭의 년보』, 송광사 성보박물관, 2016, 재인용).

30) 김태식,「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한국사론』41 · 42, 1999, 87쪽.

4. 숭선전 벽화의 조성 의미

도10. 〈숭덕전 처마〉(건판300), 대한제국, 국립중앙박물관

한편, 역대 시조를 모신 조선 팔전 가운데 숭선전 이외에 벽화가 그려진 사례로는 숭덕전, 숭혜전, 숭신전이 확인된다. 후대에 이모(移摸)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외부 단청이 남아 있는 대한제국기 사진 등을 참조하면 늦어도 20세기 초에는 벽화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도 10]

게다가 숭선전을 포함해 이들 전각이 모두 19세기 이후에 중수되거나 전호가 사액되었고 위치상으로도 가까운 지역 내에 분포하고 있어, 비슷한 시기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벽화가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려진 도상도 유사한데, 현재 숭덕전에는 일월도, 배례도, 백호, 청룡, 봉황, 학, 모란, 사슴 등이, 숭혜전과 숭신전에는 배례도가 확인된다. [표4]

[표4] 조선 팔전 목록

명칭	소재지	배향인물	건립이력	전호사액	벽화
숭인전	평양	기자(箕子)	1325년	1612년	x
숭의전	경기도 연천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원종 및 고려 충신 16인[31]	1397년	1452년	x
숭령전	평양	단군, 동명왕(고구려)	1429년	1725년	x
숭렬전	경기도 광주	온조왕(백제)	1464년	1795년	x
숭덕전	경북 경주	박혁거세(신라)	1429년	1723년	0
숭혜전	경북 경주	경순왕(신라), 미추왕(신라), 문무대왕	1627년(중수)	1887년	0
숭선전	경남 김해	수로왕(가락국), 허황후	1878년(개축)	1878년	0
숭신전	경북 경주	석탈해왕(신라)	1898년	1906년	0

31) 정종 원년인 1399년에는 태조 이외에 고려의 혜종, 성종, 현종, 문종, 원종(충경왕), 충렬왕, 공민왕의 제사를 지냈다. 이후, 문종대에 숭의전이라는 전호를 내리고 고려왕조 4왕과 충신 16명의 제

특히 숭덕전은 화풍상의 차이는 있으나, 북벽의 일월상을 중심으로 좌우 문무백관을 배치하는 구도를 비롯해 세부표현에서 숭선전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기암절벽이 솟아 있는 바다를 배경으로 구름 사이로 떠오르는 일월도, 사모단령에 홀을 들고 있는 인물상의 묘사 등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표5] 이 점은 숭선전이 "경오년(1870, 고종7)에 숭덕전을 다시 지은 때의 전례"[32]를 따라 조성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비슷한 도상이나 본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5] 숭선전과 숭덕전의 〈일월도〉 비교

〈일월도〉, 숭선전	〈일월도〉, 숭덕전

이처럼 이들 전각은 부분적인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배례도, 길상문 등을 배치해 왕의 권위와 의례공간을 장엄하고, 가문의 기복을 염원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숭선전의 경우, 이들 도상과는 별도로 수로왕과 왕비의 설화도가 그려져 있다. 이는 숭덕전이 동 · 서벽면에 봉황과 학, 청룡과 백호를 그려 장수와 벽사를 기원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었다. 길상의 의미를 넘어 이러한 시조 출현의 구체적인 장면을 그린 배경으로는 조선후기에 사찰 전각 내에 민중취향을 반영한 설화도가 출현하기 시작했던[33] 점과

사를 지내게 했다.

32) 『승정원일기』 고종 15년 무인(1878) 6월 22일

33) 전통적으로 사찰벽화는 불교 관련 존상도가 주요 벽면에 위치하고 공양적 성격의 화훼, 화조, 나한, 산수 등의 일반회화가 부속 공간에 그려지는 것이 보편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포교의 대상이 일반백성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현실적인 염원을 담은 화조, 영모 등의 길상화를 비롯해 고사인물, 설화 등도 출현하기 시작한다. 통도사 명부전의 자라와 토끼의 이야기를 담은 〈수궁도〉,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그린 신륵사 극락전의 〈위왕조조도(魏王鼂錯圖)〉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경현, 「19세기 사찰 벽화 연구: 일반회화를 중심으로」, 『문화사학』 38호, 한국문화사학회, 2012, 145쪽 참조.

더불어 무엇보다 숭선전이 박, 김, 석씨의 시조를 단독으로 모신 경주 3전과 달리, 수로왕과 허왕후의 신위를 함께 배향하는 전각이었던 점이 주목된다.

현재 합사가 이루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기록에는 허왕후릉이 수로왕릉에서 1리 떨어진 김해 구지산 동쪽[34](현재 김해시 구산동)에 위치해 상당한 거리가 있고 별도의 제각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래전부터 함께 제사를 지내 왔던 것으로 전한다.[35] 게다가 수로왕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모계인 허왕후의 성을 따르는 허씨 가계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위상과 정통성을 위해 허왕후 추숭과 숭선전 배향은 중요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17세기 이후 양란을 거치며 가문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36] 허씨 가계를 중심으로 수로왕과 허왕후의 추숭 작업이 본격화된다. 그 중 1646년에 영남관찰사로 부임한 허적(許積, 1610~1680)은 1590년대 임진왜란으로 훼손되었던 봉분을 수리한 이후[37] 60여년 만에 왕과 왕비의 능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비를 세웠다. 그리고 이때 허왕후릉 비석 뒷면에는 당대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이 다음과 같은 비음기(碑陰記)를 남겼다.

> "영제(靈帝) 중평(中平) 6년(189) 3월에 이르러 태후가 훙서하니, 수(壽)는 157세이다. 태후는 아들 10인을 두었는데, 태후의 성을 받은 자는 2인이다. 후세에 각자 받은 봉지(封地)로 따로 씨족을 삼아 공암 허씨(孔巖許氏)와 하양 허씨(河陽許氏)가 되었다."[38]

---

34) 『신증동국여지승람』권32 경상도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능묘조(陵墓條)

35) "허왕후릉은 수로왕릉에서 거리가 꽤나 멀어 같은 국내(局內)가 아닌 데다 들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도, 허왕후릉에는 제각이 없기 때문에 전부터 제향을 지낼 때에는 수로왕릉의 제각에서 합설(合設)하였습니다. 이번에 치제(致祭)할 때는 하교에 따라 각각 설행하였으나, 앞으로 절향(節享) 때에는 전례대로 합설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조선왕조실록』, 정조 16년 임자(1792) 4월 7일

36) 조선 중기 이후 양반들은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족보를 만들고 문중이라 불리는 조직을 공고히 하기 시작하였다. 박양리,「사서를 통해 본 가야 · 가야인식」,『한국문학논총』73집, 2016, 196~197쪽.

37) 허왕후릉의 보수는 1580년 영남 관찰사로 부임한 허엽에 의해 가장 이른 시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592년에 임진왜란으로 훼손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향촌 사람들과 함께 보수하였다.『기언』제41권 허씨 선묘의 비문과 석지(許氏先墓碑文石誌)

즉, 허씨 씨족(氏族)의 유래가 허왕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공암(양천) 허씨인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39] 이후에도 1698년에 김해부사 허재(許梓)가 수로왕릉 정면에 4칸의 정자각을 새로 마련하는 등 가문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었다.[40] 특히 이들이 허왕후릉을 정비하고 비석을 세워 존숭의 예를 갖추고자 한 데에는 무엇보다 허왕후가 성을 부여한 씨족의 근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문을 중심으로 수로왕과 더불어 허왕후에 대한 추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허왕후 도래와 파사석탑에 대한 설화가 18세기 이후 다수의 문헌에서 인용되기 시작한다. 허왕후가 신비로운 파사석탑을 싣고 바다를 건너온 이야기는 13세기『삼국유사』에 최초 등장하여, 조선시대에는 1530년 편찬된『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처음 수록되었다.

> "파사석탑(婆娑石塔) 호계(虎溪) 가에 있으며 5층이다. 돌 빛이 붉게 아롱졌으며 질은 좋으면서 무르고, 조각한 것이 배우 기이하다. 전설에는 허왕후가 서역(西域)에서 올 때에 이 탑을 배에 실어서 풍파를 진정시켰다 한다."[41]

이후, 거의 같은 내용이 18~20세기에 간행된『김해읍지』, 이학달의『낙하생집(落下生集)』, 1903년의『숭선전지』 등 18세기 이후의 문헌들에서 다수 확인된다.[42] 이 시기 파사석탑과 허왕후 도래 설화가 확산된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결과적으로 아유타국(阿踰

38) 앞의 사료

39) 이 외에도 허목은「족씨양천허씨족보서(族氏陽川許氏族譜序)」에서 허씨 가문의 뿌리가 가락에 있음을 밝히고, 자신이 간행한 시문집인『기언』에 수로왕과 왕비릉의 비음기를 제일 첫머리에 두어 시조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박양리, 앞의 논문, 19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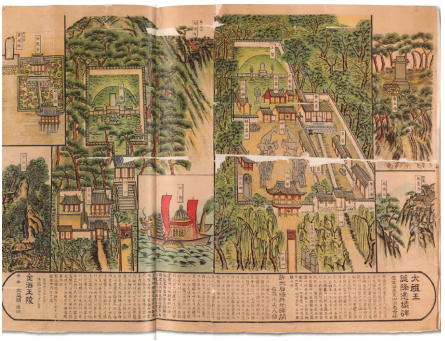
40)『동국여지지』 권4하 김해도호부 능묘조를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년도	주도 인물	능묘 정비
1580	영남 관찰사 허엽	수로왕, 허비묘 수리
1641	김해부사 허동익	수로왕묘 능문 설치
1646	영남 관찰사 허적	수로왕, 왕비묘 수리, 비석 건립
1698	김해 부사 허재	정자각, 신주, 재실 설치

41)『신증동국여지승람』 제32권「경상도 김해도호부(金海都護府)」 고적

42) 전지혜,「김해 파사석탑의 원형에 대한 고찰」,『진단학보』 133, 2019, 9~13쪽.

陁國)이라는 이국(異國) 출신의 여성에서 초월적 존재로서 허왕후의 위상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숭선전의 〈허왕후 도래도〉는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사례로 추정되며, 이후 파사석탑을 실은 용선은 허왕후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현대까지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도11]



도11. 〈수로왕릉 안내도〉, 1951년, 개인소장

이처럼 숭선전에 등장하는 수로왕 탄생의 신비로운 순간과 용의 위호를 받으며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허왕후 도래의 장면은 시조 출현의 신성성 뿐만 아니라 김, 허 양 가문의 비범함과 우월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데 유효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조 설화와 각종 길상문으로 장엄된 숭선전은 가문의 번창과 출세, 부귀 등의 대중적 염원이 공존하는 추숭과 기복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5. 결론

김해 숭선전은 가야 시조인 김수로왕과 허왕후의 신위를 배향하는 전각으로, 내부에는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다. 벽화는 북쪽 벽면에 안치된 위패를 중심으로 일월도, 배례도, 시조 설화도, 화조영모, 산수 등을 배치해 왕의 권위와 예배 공간을 상징하고 수복, 다산, 번영과 같은 길상적인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특히 숭선전에는『삼국유사』에 기록된 수로왕 탄강설화와 허황후의 파사석탑 설화가 그려져 있어 주목된다.

논고에서는 이러한 벽화의 내용과 구성이 의례의 정신성을 강조하고 과도한 장식성을 배제했던 조선시대 사묘 건축과는 차별되는 점을 바탕으로,

벽화 조성의 연원을 검토하고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제 숭선전 벽화는 18세기 이후 조성된 사찰 원당 벽화와 도상 및 형식이 유사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유교 사당과는 달리 조상 추숭과 현세 기복적인 도상이 다수 확인된다. 특히 전례를 찾기 힘든 수로왕과 허왕후의 설화도는 숭선전이 다른 팔전과는 달리 김, 허 양 씨족의 시조묘(始祖廟)라는 점에서 각 가문의 위상과 정통성을 드러내는데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숭선전 벽화에 담긴 가문의 번창과 출세, 부귀 등의 대중적인 염원은 19세기 후반, 급격한 사회 변동 속에서 유교의 현세 기복적인 성격이 강화되던 당대 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거듭된 민란과 열강의 침입으로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던 시기에 고종이 숭신, 숭혜, 숭선전의 전호를 사액하고 역대 시조묘의 대대적인 수리와 중수를 명하는 한편, 다수의 사찰 원당을 건립했던 상황과도 다르지 않았다. 역대 시조에 대한 유교적 존숭과 내세 추복을 위한 원당 건립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숭선전 벽화는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연구논문

김인호,「조선전기 숭의전의 설치와 역사인식」,『사학연구』78, 2005.

김지연,「조선후기 반야용선도 연구」,『미술사학연구』281호, 2014.

김태식,「김해 수로왕릉과 허왕후릉의 보수과정 검토」,『한국사론』41 · 42, 1999.

박양리,「사서를 통해 본 가야 · 가야인식」,『한국문학논총』73집, 2016.

백지국,「경주 숭덕전의 역사적 연원과 박혁거세 추송 의식」,『민족문화논총』76호, 2020.

백찬규,「건물 벽화의 해체 · 이전공사와 그 보존: 김수로 왕릉 숭선전벽화의 보존처리」,『헤리티지: 역사와 과학』22호, 1989.

이남옥,「조선시대 箕子 추숭의 과정과 그 의미」,『한국서원학보』16, 2023.

이용윤,「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기로소 원당에 관한 고찰」,『불교미술사학』3, 2005.

장계수,「순천 선암사 축성전(현 장경각)의 벽화 연구」,『불교미술사학』제27집, 2019.

정 현,「조선후기 祭祀圖 연구」, 경주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7.

최경원,「조선 전기 불교회화에 보이는 接引龍船 도상의 淵源」,『미술사연구』25호, 2011.

최 엽,「화승의 회화 제작 역량과 영역」,『불교미술사학』31집, 2021.

탁효정,「조선시대 왕실 원당 연구」, 한국학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12.

한형주,「조선시대 '역대시조묘'에 대한 의례적 고찰」,『국학연구』39호, 2019.

_____,「국가 의례의 측면에서 본 숭선전 제례의 검토」,『숭선전제례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집』, 2020.

2. 단행본

김해시,『김해 수로왕릉 숭선전 단청(벽화) 기록화 사업 보고서』, 2022.

문화재청 · 성보문화재연구원,『한국의 사찰벽화(전라남도)』, 2012.

_____,『한국의 사찰벽화(전국)』, 2014.

숭선전사편찬위원회,『숭선전사』, 대보사, 2016.

한국학문헌연구소 편,『曹溪山松廣寺史庫』, 아세아문화사, 1977.

3. 기타 사료

『三國遺事』『朝鮮王朝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東國輿地誌』

『記言』『조선일보』『매일신보』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金海崇善殿壁画の研究

金正善(キムジョンソン)*

金海市水路王陵の史跡地内に位置している崇善殿(スンソンジョン)は、駕洛國の始祖である水路王と王妃許氏の神位を奉安している殿閣で、朝鮮八殿の一つである。1878年に高宗が殿號を与えて新たに重修した崇善殿内部には、東、西、南、北の四方に壁画が描かれていて注目される。壁画は王室の権威を象徴する日月図、文武百官の拝礼図、水路王と虚王后の説話図をはじめ、花卉、山水図など計51件に達する。

論考では、このような壁画の内容と構成が過度の装飾性を排除した朝鮮時代の祠堂建築では異例である点に注目し、これまで照明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崇善殿壁画を対象に、図像の淵源と壁画造成の意味を検討した。

実際、崇善殿の壁画は18世紀以降に造成された寺院の壁画と図像との形式が類似しており、内容においても先祖の崇拝と現世の祈福的な図像が多数確認された。特に崇善殿が他の八殿とは異なり、金、許の兩氏族の始祖廟であることから、水路王と虚王后の說話図は、各家門の位相と正統性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有効的であったといえる。

結果的に、崇善殿の壁画に投影された家の繁栄と出世、富貴などの大衆的な願いは、19世紀後半の急激な社会変動の中で儒教の祈福的な性格が強化された当代の状況を代弁することでもあった。

主題語 : 崇善殿, 金首露王, 許王后, 朝鮮八殿, , 崇拝, 祈福, 般若龍船

논문투고일 : 2024년 7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24년 8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27일

* 東亞大学校 歷史文化学部 考古美術史学 專攻 助教授